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The global union federation of workers in public services

6

현안 보고서 6
KOREAN



법인세 문제의 해결

노동조합은 기업의 국가별 공개 보고를 요구한다

국가별 공개 보고

해결 과제: 기업의 이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세계 교역의 적어도 3분의 1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자회사들의 상호 구매와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거래는 공개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립 회사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사실상 내부 거래는 쉽게 조작되며 이를 통해 이윤을 조세피난처로 이전시킬 수 있다.

핵심 사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각국 정부에
다음의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게 이윤과 납세 현황,
기타 핵심 재무 데이터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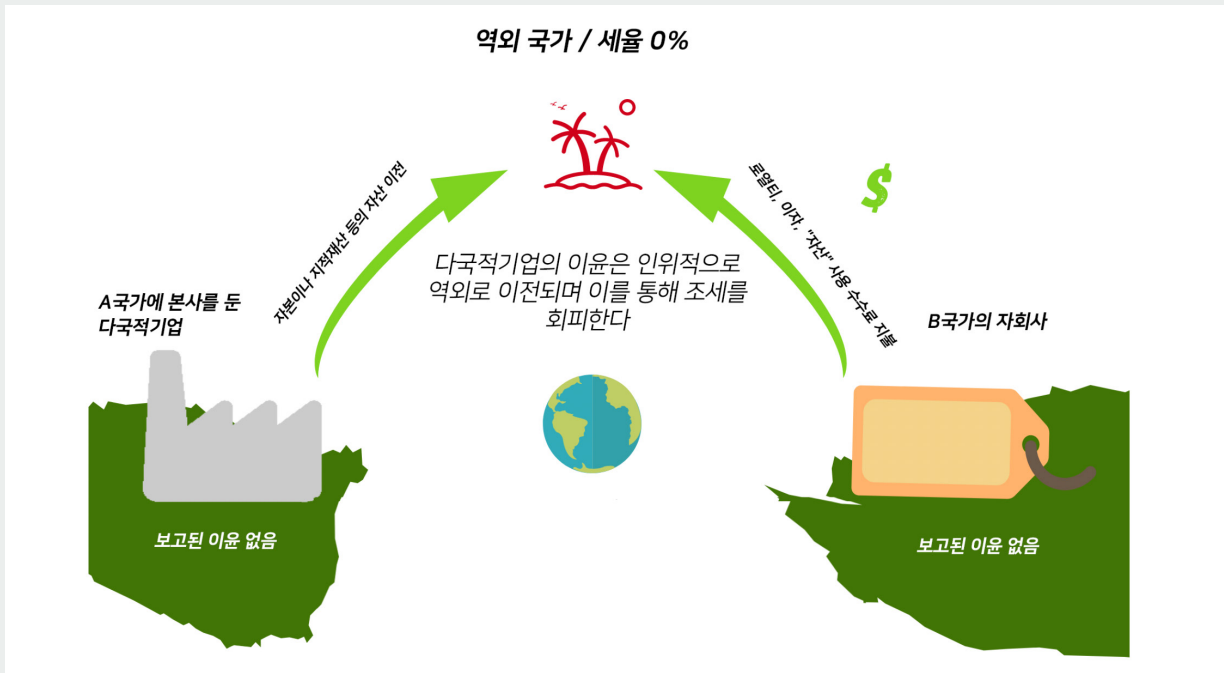
“이전가격 남용”의 고전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다국적 회사의 한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품을 수출한다. 이어서 이 조세피난처의 회사는 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이 조세피난처에 모이게 된다.;
2. 자회사는 예컨대 브랜드나 상표 사용에 대한 로열티, 대부 이자, 또는 경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조세피난처의 관계사에 지불한다. 조세피난처가 지불 대금의 총착지가 되는 동안 이 모든 비용은 자회사의 이윤에서 공제되며 그리하여 사업 수행 국가의 세금 고지 금액은 줄어든 수 있다.

기업 이윤의 역외 이전은 보건과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에 쓰일 수 있는 세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도 돈을 치워버린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윤이 역외로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조세 당국이 세입을 징수할 수 없다면 노동자들 역시 공정한 임금 인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 노동자들은 이윤의 이전이 “효율적인” 조세 행동이며 이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조세 당국과 노동자들의 것을 공히 빼돌리기 위해 동일한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 가격 조작: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국적기업은 자본이나 지적재산(IP)(예. 소프트웨어) 등의 자산의 소유권을 조세피난처의 회사에 둔다. 조세피난처의 회사는 이들 자산을 사용한 대가로 B국가의 자회사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경비의 후자의 B국가의 세금 고지 금액에서 공제되며 화폐의 증착지는 조세피난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윤은 그것이 창출되고 생산된 곳(생산국가와 소비국가)으로부터 어떠한 실제적인 경제 활동도 일어나지 않은 역외 피난처로 이전된다.

이러한 종류의 남용에 조세 당국이 대처하기는 어렵다. 조세 당국은 어떤 거래에서 가격이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많은 거래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조세 당국은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때로는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변호사와 회계사 군단에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현안 보고서 3 참조). 주요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회계 기록이 진행되는 사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일부 조세피난처의 경우 회계보고서 발행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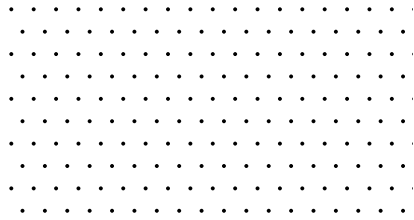
회계보고서가 발행되는 곳에서도 다른 자회사를 오가는 커다란 현금 흐름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러한 거래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세부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현재 전역 회계에서 국가 수준의 세부사항을 발행하거나 모든 자회사들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 기준 역시 다국적기업의 주식이 등재된 지역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컨대 많은 나라에서 지역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회사들에게는 회계보고서 발행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사가 회계보고서를 발행하는 영국에서조차 이러한 회계 기록에는 동일 다국적기업 자회사들 간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거의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나는 탈세가 도덕적 사안, 인권의 사안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 이사





지금까지의 경과

제도는 오랫동안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수년간 정부는 기업 로비스트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중적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마침내 “국가별 보고”를 위한 세계 기준을 개발했다.

국가별 보고 회계 기준 원안은 시민사회단체인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2003년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이 매년 이윤과 납부 세금을 비롯한 핵심 정보를 사업 수행 국가 또는 관할지역별로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다.(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 요약서 참조). 이러한 보고서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인이나 유형 자산이 거의 없는 관할지역에서 다국적기업이 과도한 양의 이윤을 기장하는 시점 — 이는 조세 회피의 고전적 징후이다 — 을 보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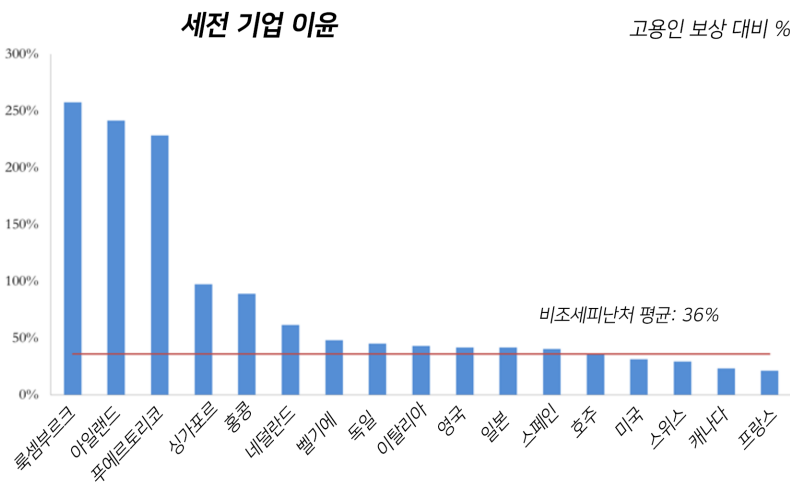
이러한 보고 형식이 그 자체로 법인세 회피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 규칙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보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 활동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탈세 기업 및 탈세 여건을 조성하는 정부에 대한 대중적 압력의 동원을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의 국가별 정보 공개를 도입하였으며 초기 분석은 이로 인해 납세액이 10%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OECD는 강대국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들 정부 중 일부는 여전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미온적이다. 결과적으로 OECD 기준에는 심각한 약점이 있다.

하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내놓은 정보 공개 기준의 새로운 안은 OECD 모델에 대해 기술적으로 강력한 대안을 제공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과 통신사 [보다폰](#)이 유럽의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은 이후 그러했듯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자체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인 국가별 공개 보고가 일부 로비스트들이 주장하듯 기업의 사업활동을 무력화시키거나 일 자리를 위협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룩셈부르크 등의 조세피난처에 기장한다



출처: Zucman, Tøsløv and Wier. The Missing Profits of Nations. July 2018

금융 기관의 보고 요건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노르웨이와 캐나다처럼) 석유, 가스, 광물 회사에 대한 보다 제한된 형식의 국가별 공개 보고를 채택했다. 2018년 중반 EU는 이러한 보고를 여타 경제 부문의 다국적 기업으로 확장하는 [제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는 여러 예외 및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세 관행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용될 여지가 있다.

OECD 기준: 핵심 쟁점

1. OECD 기준은 이러한 국가별 보고서를 공중이 아니라 조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공개 보고 없이 기업 탈세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개 보고 없이는 다국적 기업이 이윤을 역외로 숨겨둔 채 그들의 고용인들에게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작업장을 폐쇄하고 일 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닌지 노조가 확인할 방도가 없다.
2. 기준은 오직 750M 이상의 매출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는 최저한도를 낮추라는 조세정의 캠페인의 압력에 OECD가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중간 규모의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이 어떻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의무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3. 보고서는 OECD가 설계한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국가 조세 당국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최빈국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위험에 처한다. OECD 시스템에 서명한 대략 70개의 국가 중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5개국에 불과하다. 필요할 때 언제나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은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4. OECD 기준은 다국적기업군의 내부 거래를 제3자 거래와 분리하지 않으며 보고서가 기업의 전역 회계와 일치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누락으로 인해 회사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가치는 제한된다.

The image shows the Chevron logo, which consists of the word "Chevron" in a bold, sans-serif font above a stylized chevron symbol. The chevron is composed of two overlapping shapes: a blue one on top and a red one on the bottom, both pointing downwards.

노동조합 활동 사례

쉐브론: 공공과 민간 부문을 가로지르는 노조 역량 육성

석유 다국적기업 쉘브론사와 호주의 제휴 계약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한편 유의미한 대화 참여를 거부했을 때 노조는 이를 간의 파업으로 절정에 달한 일련의 행동을 전개했다. 쉘브론사가 200만\$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노조를 법정으로 끌어들이었을 때 노조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다.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로지르는 여러 노조들과 협력하여 공정한 몫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쉘브론사가 어떻게 의심스러운 조세 음모를 꾸민는지 폭로했다. 2015년 PSI와 ITF, 그리고 조세정의네트워크 호주 지부는 쉘브론사가 과세되지 않은 350억\$ 이상의 소득을 역외 계좌에 은닉한 사실을 밝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연방상원 청문으로 이어져 쉘브론사의 임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정치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들은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노조의 조사에 응답해야 했다. 또한 조세피난처 이용으로 15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납세액을 줄일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2017년 쉘브론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국세청과의 협상을 타결짓고 10억\$를 미납 세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백만 달러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주도한 이 캠페인은 쉘브론사의 세계적 세금 고리를 밝히는 데 일조했다. 특히 네덜란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의 이용은 네덜란드 노조가 참여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어 그들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사를 상대로 한 [역사적인 조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례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동원되는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대해 노조는 국경을 가로질러 캠페인 활동과 조사를 연계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전투적인 행동과 산업재판소에 의존하기보다 참여 노조들은 쉘브론사의 재무 행동에 직접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토록 중요한 거대 기업의 세금 납부에 일조함으로써 노조는 그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동시에 세금이 노조 역량을 육성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쉘브론사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은 향후에 있을 노조와의 싸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투명성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1. 기존의 회계 규칙은 이윤과 납세 현황을 국가별로 분류할 것을 다국적기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세금 회피를 보다 쉽게 은폐하도록 만든다.
2. 조세 회피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의존하는 교육과 보건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세입을 국가로부터 빼앗는다. 여성들은 훨씬 더 큰 손해를 입는다.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국가별 보고를 통해 기업이 어디서 이윤을 얻고 세금을 납부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세금 회피의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윤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경각심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4. 투명성 역시 기업의 공정한 납세 부담을 요구하는 대중적 압력을 일으킴으로써 조세 당국에 도움을 주고 조세 제도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1. 모든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적 모범 사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를 회사 웹사이트에 발행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정부는 모든 보고서들을 한 곳에 모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글을 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높은 국제 기준은 GRI의 조세 기준이다. OECD와 모든 나라들은 이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3. 다국적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세계 노조 연맹과 전국 노조들은 세계 기준 협약 Global Framework Agreements 및 단체교섭 협약에서 GRI 기준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4. 발행되는 보고서는 보고서의 분석 및 비교가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개방형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 규칙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국가별 보고서는 상이한 숫자들이 상응하는 방식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업의 전역 회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5.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다국적기업들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보고서 발행 의무를 갖는 기업의 최저한도는 현재의 최소 7억 5천만 의 세계 매출에서 1억 또는 1억\$와 같은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조정되어야 한다.
6. 해외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매년 대형 국내 소유 회사와 해외 소유 회사별로 총소득과 과세 소득, 납부 세액을 발행하는 호주의 사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 활동이 아닌 기업 이윤과 세금에 대한 제한적인 그림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완전한 국가별 보고서의 대체물이 아니다. 이는 부당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대중적 압력을 일으키는 유용한 방식이다.





노동조합 활동 사례

세금 조사가 노인돌봄의 질을 높인다

호주 간호 조산 연맹 The Australian Nursing & Midwifery Federation (ANMF)은 노인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돌봄 분야의 간호사-환자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의 선봉에 서 있었다. 하지만 민간 부문 회사 대표들은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충분한 재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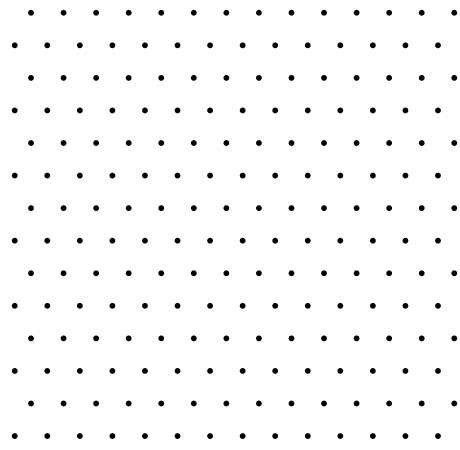
이에 대응해 ANMF는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많은 양의 정부 기금을 받는 민간 노인돌봄 공급자들이 어떻게 이윤을 역외로 이전하는지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 일주일 만에 보고서는 공식적인 연방상원 조세 청문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부파사 Bupa, 알리티사 Allity, 오팔 요양병원 Opal Aged Care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어떻게 고도로 복잡한 다국적기업 구조를 이용하고 관계사 대출을 수시로 받아 이윤을 역외로 빼돌리는지 그 윤곽을 제시했다. 전세계 정부들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외부 위탁은 치솟는 비용, 서비스 품질의 악화, 의심스러운 조세 관행이 대중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면서 점점 사방의 공격을 받고 있다.

호주에서는 왕립 노인돌봄 위원회를 통해 빈약한 돌봄과 영양, 불충분한 직원 채용 등의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분노가 증폭되었다. 이같이 불량한 수준의 노인돌봄은 수십억 달러의 정부 재정이 영리를 추구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원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기업 구조에 대해, 또한 이들 회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여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받는 수백만 달러에 대해 노인돌봄 공급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애니 버틀러, ANMF 연맹 의장

캠페인 및 세금 관행의 폭로 결과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답이라는 견해는 점점 줄어들고 자격을 갖춘 직원의 총원과 투명성 및 책임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더 알아보기

유럽공공서비스노조 - 보고서

세금조사관이 국가별 공개 보고를 원하는 6가지 이유

<https://www.epsu.org/article/six-reasons-why-tax-inspectors-want-public-country-country-report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세금 및 납부에 관한 GRI 기준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tax-transparency-investors.aspx>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세정의네트워크

국가별 보고서를 다룬 조세정의네트워크 웹 페이지

<https://www.taxjustice.net/topics/corporate-tax/country-by-count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출판물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WWW.FESDC.ORG)의 아낌없는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TEL: +33 4 50 40 64 64
E-MAIL: PSI@WORLD-PSI.ORG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PSI)은 163개 국가에서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2,00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조연맹이다. 국제공공노련은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공공노련은 유엔시스템과 협력하며, 노동조직, 시민사회조직 등과 제휴하고 있다.